Original Article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22, Vol. 35, No. 3, 61-81

ISSN(Print) 1229-0718
ISSN(Online) 2671-6542
https://doi.org/10.35574/KJDP.2022.9.35.3.61

OPEN ACCES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아버지 양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고찰 연구*

Received: May 5, 2022
Revised: July 15, 2022
Accepted: August 24, 2022

김용훈[1], 이경숙[2]
한신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 / 조교수[1], 한신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2]

Theoretical Review for Promoting Fathers' Involvement in Parenting

교신저자: 이경숙
한신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경기도 오산시 한신대길 137

E-MAIL:
debkslee@hs,ac.kr

Yong-hun Kim[1], Kyung-Sook Lee[2]
College of Human Service, Hanshi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1]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Hanshin University/ Professor[2]

*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Copyright 2022.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본 연구는 아버지 양육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아버지 양육 활성화 연구의 기초자료 및 후속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21년까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아버지 양육 관련 주제어를 조합하여 추출된 652편의 국내 문헌과 257편의 국외 문헌을 대상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된 키워드 네트워크 내 키워드 간 최대 연결 거리와 노드 간 평균 거리를 살펴본 결과, 변인 간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초 동향분석 결과, 관련 연구들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부양자에서 양육자로서의 역할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시기별 키워드 분석 결과, 초기에는 양육의 효과성 검증에 중점을 두었으나 점차 양육 촉진 방안 탐색 관련 연구들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 중심성 네트워크 분석 결과, 아버지의 자기효능감, 아내와의 관계 증진, 자녀의 사회성과 관계성, 인지기능의 증진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아버지 양육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후 구성 및 개발하는데 방향을 제시하여 연구가 부족한 영역인 아버지 양육 관련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아버지, 아버지 양육, 연구 동향,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www.kci.go.kr

오늘날 아버지 역할은 과거와 많은 부분 달라졌다. 과거에는 부양자 역할, 성 역할 모델만이 강조되었지만, 현재는 자녀의 정서적 역할까지 담당하는 양성적인 양육자로서의 인식이 증가 되고 있다(윤성민, 2016). 리처드 플레처(2012)는 이러한 아버지 역할 변화에서 생계적 아버지와 양육적 어머니의 기존 역할 분담 변화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라고 하였다. 이처럼 남성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자녀를 돌보는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새로운 사회적 규범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가족 내 아버지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나성은, 2014).

이에 오늘날의 아버지들은 'frienddy'라는 신조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친구같이 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라는 담론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아버지는 'new father', 'new fatherhood', 'friend daddy', 'super daddy', 'androgynous father' 등의 용어로 표현된다(조윤경, 2012).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아버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양육에 대한 가치 및 신념의 변화는 아버지 양육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조형숙, 김지혜, 김태인, 2008).

아버지 양육 관련 연구결과, 아버지들은 자녀들의 삶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뒷받침하며, 어머니가 대체할 수 없는 질적으로 고유한 아버지만의 역할이 있다고 본다(Ringsmose, 201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높을수록 자녀들의 인지능력과 감정이입 능력이 발달되고 정서조절 능력과 또래 유능성이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미숙, 송순옥, 2014). 또한, 자녀의 학업능력과 언어 발달, 기본생활습관, 성 역할과 창의성 발달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나현정, 최미숙, 2017; Bauman & Wasserman 2010; Saracho, 2007). 더 나아가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결혼만족도의 증진과 아내의 양육 스트레스 감소, 아버지 자신에게도 긍정적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박형신, 이진희, 2010). 즉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자녀의 전인 발달을 도모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아버지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기대는 일정 정도 아버지 양육 참여를 증진 시켰지만, 사회적 기대와 실제 아버지들의 역할수행 간 불일치로 아버지들은 정체성의 혼란 및 내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이현아 et al, 2017).

여전히 아버지가 주 부양자라는 관념이 지배적인 현실에서 양육자의 정체성을 갖도록 사회화된 아버지들은 직업적 성취와 자녀 양육 사이에서 긴장과 갈등을 경험한다(양소남, 2013). 즉 아버지들은 경제적 능력과 더불어 양육에 충분한 시간을 쏟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적 역할로 인해 양육에 참여하지 못할 때 죄책감과 낮은 역할 만족도를 나타낸다(백진아, 2009).

이에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도모하고 아버지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실제 아버지 역할수행 간 불일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이 강조됐다(이현아 et al, 2017). 2006년 이후 건강 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아버지들의 참여 및 역할수행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시행되었고, 아버지 대상 교육 프로그램, 아버지와 자녀를 위한 돌봄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었다. 특히 2016년부터는 일과 가정 두 영역 간 양립의 중요성과 가정 내에서의 아버지 역할 교육 및 지원, 아버지-자녀 상호작용에 대한 지원 사업이 포함되었다(여성가족부,

www.kci.go.kr

2016). 이러한 움직임은 과거 어머니를 대상으로 개발되고 진행됐던 교육 프로그램을 아버지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프로그램 요구도를 조사하고 아버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 및 개발하여 효과성을 검증하는 시도들로 나타나게 되었다(권혜진, 2013).

아버지 양육 참여 활성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발달 시기 자녀의 발달 증진, 자녀와의 관계, 아버지 역할효능감을 증진 시키는데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아버지들은 참여 후 자녀와의 친밀감을 경험하였고(김민선, 2014), 긍정적 상호작용을 나타냈으며(김미경, 김현주, 2016), 아버지-자녀 관계 만족도가 향상되었다(명현주, 2012).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아버지들은 부모효능감(황혜신, 윤명자 2015)과 아버지 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다(안혜선, 방경숙 2014).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버지들의 자녀들에게 나타난 효과성을 살펴보면 공격성의 감소(김미경, 김현주, 2016)와 역기능적 행동(권기남, 2014)이 감소하였고,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폭력적인 행동의 표출이 감소(이종순, 2002)가 나타났다.

이상의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연구들은 아버지들의 역할수행 및 자녀들의 발달 증진에 기능적 역할을 하였지만, 아비지 양육 참여 활성화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가 부족하여 그동안 진행된 연구의 기여 및 한계점 향후 진행될 연구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국외에서는 아버지 양육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의 동향분석 및 메타분석 연구를 통해 아버지 양육 참여 활성화 관련 연구의 발전을 이뤄왔다(Fagan & Kaufman, 2015; Knox et al, 2011).

Brown(1969)은 “각 학문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 있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돌이켜보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체계적인 틀을 통해 연구의 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연구의 흐름을 파악해가며 그 영역에서 연구의 균형을 이룰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새로운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의미가 있다. 특히 아버지 양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학문적 재검토와 체계의 확립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버지 양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동향연구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프로그램의 개발, 실시와 효과성의 검증과 관련된 부분들을 포함하므로 향후 연구 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구성 및 개발될 아버지 양육 참여 활성화 관련 프로그램 연구의 촉진에 있어 유용하다.

연구 동향 분석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용분석으로 전통적인 문헌 분석방법이다. 이 방법은 연구자가 분류한 범주에 따라 그 내용을 고찰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심도 있는 해석과 고찰을 볼 수 있는 강점이 있지만,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위험성이 있다(이성용, 박소영, 2019). 다른 하나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으로 연구 주제, 키워드, 초록에 있는 주요 키워드를 종합하여 출현하는 빈도와 키워드의 유사도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연관 관계를 분석하는 분석방법이다(이성용, 박소영, 2019). 연구의 키워드는 연구자가 연구를 위해 핵심적인 단어들을 명시한 것으로 총체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그 분야의 핵심이 되는 주제 및 지식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다(정혜영, 손유진, 2015).

최근 들어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심리학, 교육학, 부모교육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나 아버지들을 양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동향분석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www.kci.go.kr

이에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국내외 아버지 양육 참여 활성화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1년까지 학술지에 게재된 국내외 아버지 관련 연구들로 기간을 정해 연구의 빈도 및 추이를 살펴보고, 전체 키워드 간 중심성 수치를 비교 분석하여 지금까지의 아버지 양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연구들의 동향을 살펴보고 앞으로 진행될 후속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국내외 논문에서 나타난 아버지의 양육 참여 관련 연구의 키워드 출현빈도와 네트워크 중심성은 어떠한지 살펴본다.

방 법

분석대상 선정

아버지 양육 참여 활성화 관련 연구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위하여 학술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논문을 검색하였다.

국내 문헌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에 등재, 등재 후보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으로 선정하였으며, 국외 문헌의 경우 과학기술 논문 인용 색인에 발표된 논문으로 선정하였다.

논문의 게재 연도는 제한을 두지 않았고 연구자가 검색한 2021년까지 수록된 국내외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추출된 논문 중 저자가 키워드를 제공하지 않은 논문, 중복된 논문, 논문 주제가 아버지 양육과 관련 없는 논문은 제외하였으나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본문을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논문 선정 여부를 결정하였다.

검색에 사용된 키워드는 국내 문헌의 경우 '아버지 양육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아버지 양육 프로그램', '아버지 교육프로그램', '아버지 프로그램' 등의 관련 주제어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검색하였으며, 1991년부터 2021년까지 추출된 857편의 논문 중 652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국외 문헌의 경우 'Father Parenting Promotion Program', 'Father education', 'Father intervention Program', 'Fatherhood' 등의 관련 주제어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검색하였으며, 1995년부터 2021년까지 추출된 387편의 논문 중 257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절차

본 연구는 NetMiner 프로그램을 활용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시도하였다. 키워드 네트워크란 문헌에서 키워드를 추출하고, 각 키워드 쌍의 동시 출현빈도를 파악한 후, 이 빈도로부터 키워드 사이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구성한 네트워크를 의미한다(이수상, 2013). 동시 출현 빈도분석은 다음의 가정을 전제로 한다. 논문의 저자들은 유한하고 정형화된 레퍼토리에서 용어를 선택하고, 여러 학자가 같은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해당 연구 영역에 대한 인지구조를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Nicola Be Bellis, 2010).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아버지 양육 참여 활성화 관련 연구에서 키워드를 추출하고, 키워드 간의 구조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그 특징을 분석함으로 지금까지 어떠한 주제가 연구되었는지 동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변진언(2017)

www.kci.go.kr

표 1. 분석절차

단계	적용
텍스트 데이터 준비	분석 기준에 따라 아버지 양육증진 관련 논문 설정
⬇	-
텍스트 데이터 특성 분석	자료 상세정보를 excel 형태로 저장하여 영역별 특성 분석
⬇	
분석 프로그램에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 입력	2-mode인 단어-논문 네트워크 생성
⬇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 전체 네트워크에서 유의미한 관계 추출	1-mode인 단어-논문 네트워크 생성
⬇	
키워드 빈도분석	워드 클라우드와 출현빈도
⬇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분석 Spring map, Circular map 생성
⬇	
결과, 해석	

이 제시한 절차를 중심으로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표 1과 같이 진행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텍스트 데이터 준비 단계로 분석대상 선정 기준에 맞는 대상 문헌을 선정하는 과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상 문헌의 유형을 국내 문헌의 경우 KCI 등재 및 KCI 등재 후보학술지, 국외 문헌의 경우 SCI급 논문으로 제한하여 아버지 양육 참여 활성화 관련 연구를 선정하였다. 선정 후 excel로 논문의 상세정보를 정리하여, 관련 연구의 연도별 게재 현황을 파악하였다.

둘째, 분석 프로그램에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 입력 단계로 분석대상 논문에서 제시하는 키워드 리스트를 사용하였으며, 명사 형태인 키워드를 추출하여 유의어, 지정어, 제외어 사전을 만드는 과정인 키워드 정제(keyword cleaning) 작업을 진행함으로 단어-논문 네트워크를 생성하였다.

입력 단계로 분석대상 논문에서 제시하는 키워드 리스트를 사용하였으며, 명사 형태인 키워드를 추출하여 유의어, 지정어, 제외어 사전을 만드는 과정인 키워드 정제(keyword cleaning) 작업을 진행함으로 단어-논문 네트워크를 생성하였다.

셋째,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 전체 네트워크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추출하는 단계로 이원 모드 행렬(문헌×키워드)을 일원 모드 행렬(키워드×키워드)로 변환하여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하였다.

넷째, 키워드 빈도분석을 진행하는 단계로 아버지 양육 참여 활성화 관련 연구로 선정된 논문 주

www.kci.go.kr

제어에서 키워드 정제 작업을 통해 추출된 유의미한 키워드와 유의미한 키워드를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여 출현빈도가 높은 키워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키워드의 빈도 양상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수치화하여 표로 제시하였다.

다섯째,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는 단계로 특정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와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연결 중심성 분석을, 특정 키워드가 네트워크 구조 속에서 어느 정도 중개 역할을 수행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매개 중심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내용은 하나의 개념이 어떤 개념과 인접해 있는지 파악하기 유용한 spring map(변진언, 2017)으로 제시하였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앞선 과정을 바탕으로 결과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였다.

키워드 정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키워드 정제 작업이 연구의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정확한 키워드를 선별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대표적으로 지정어, 유의어, 제외어 사전 제작이 이 과정에 해당한다(변진언, 2017).

본 연구의 키워드 추출은 분석대상 논문에 제시된 키워드 리스트를 중심으로 하였다. 논문의 키워드는 연구자가 논문 전체의 내용을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한 주요 단어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 키워드 정제 작업의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띄어쓰기로 인해 키워드의 의미가 다르게 도출될 수 있기에 띄어쓰기를 없애는 교정 작업을 하였다. 일례로, '양육의 질'이라는 키워드 표기를 '양육의질'로 수정하여 지정어 사전에 등록하였다.

둘째, 제거 작업으로 논문을 검색한 키워드는 삭제하였다. 예를 들어 '아버지', '양육', '프로그램', 'Father', 'Fatherhood', 'Program', 'Fathering', 'Parenting', 'Participation', 'Education' 등은 제외어로 분류하였다. 제거 작업은 출현빈도가 높은 키워드 중에서 일반적인 개념의 용어를 분석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분석대상 논문이 모두 아버지의 양육 활성화를 주제로 한 연구이므로 아버지 양육 활성화에 관련된 키워드가 파악될 필요가 없고, 키워드 간 네트워크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제외하였다.

셋째, 통제 작업으로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과 유사어를 통일하였다.

마지막으로 넷째, 이상의 키워드 정제 작업에 대한 내적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집단의 검토를 받아 수정 및 보완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결 과

연도별 연구 현황

아버지 양육 참여 활성화 관련 키워드 연구 중 본 연구의 주제에서 벗어난 논문을 제외한 국내 문헌의 경우 1991년부터 2000년까지 33편,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55편, 2011년부터 2021년까지 464편, 총 652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국외 문헌의 경우 1995년부터 2000년까지 45편, 2001년부터 2010년까지 48편,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64편, 총 257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으로

www.kci.go.kr

표 2. 연도별 논문 현황

	1991, 1995~2000	2001 ~2010	2011 ~2021	계
국내	33	155	464	652
국외	45	48	164	257

선정된 논문의 연도별 현황은 표 2와 같다.

아버지 양육 참여 연구의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아버지 양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아버지 양육 참여 활성화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출현빈도

아버지 양육 참여 활성화 관련 연구들에 대한 출현빈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 앞서 핵심 키워드를 시각적으로 한 번에 볼 수 있는 워드 클라우드를 진행하였다. 워드 클라우드는 출현빈도가 높은 키워드들을 한눈에 파악하기 쉬운 가장 기본적인

그림 1. 워드 클라우드(국내 문헌)

그림 2. 워드 클라우드(국외 문헌)

시각화 자료이다(변진언, 2017). 키워드 정제 작업을 한 결과 국내 문헌은 총 36개의 키워드가 도출(키워드 상위 60위 기준)되었으며, 국외 문헌의 경우 총 32개의 키워드가 도출(빈도수 50회 이상)되었다. 이를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한 결과는 그림 1, 그림 2와 같다.

워드 클라우드에서는 출현빈도가 높은 단어가 상대적으로 크게 표현된다. 국내 문헌의 경우 양육, 자녀, 어머니, 영향, 교육 등이 핵심적인 키워드로 나타났으며, 국외 문헌의 경우 Child, family, mother, group 등이 핵심적인 키워드로 나타났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해당 키워드의 출현빈도 상위 20위를 수치화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국내 문헌의 키워드는 417회에서 1,593회의 출현빈도를 가지며 평균은 795.8, 표준편차는 324.9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는 단어는 양육으로 1,593회, 자녀는 1,274, 교육이 1,229회의 빈도를 나타냈다. 국외 문헌의 경우 평균은 122회, 표준편차는 100.8로 확인되었다. 가장 많은 빈

www.kci.go.kr

표 3. 키워드 출현빈도(상위 20)

순위	국내 문헌		국외 문헌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1	양육	1593	child	504
2	자녀	1274	mother	203
3	교육	1229	group	198
4	영향	1057	family	175
5	관계	990	involvement	143
6	어머니	981	intervention	139
7	유아	967	relationship	107
8	참여	853	support	105
9	가족	826	need	93
10	사회	749	effect	90
11	행동	740	role	86
12	아동	698	level	81
13	대상	638	man	79
14	태도	552	health	71
15	문제	529	skill	69
16	학교	489	school	68
17	가정	487	finding	68
18	인식	426	development	57
19	효과	421	time	56
20	필요	417	control	56

도를 나타내는 단어는 Child로 504회, Mother는 203회, Group은 198회, Family가 175회 출현빈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의 출현빈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키워드가 아버지 양육 활성화 관련 주제로 많이 다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요한 개념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키워드의 의미와 중요도를 출현빈도로만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전체 키워드를 속성을 중심으로 범주화하여 살펴보았다.

아버지 양육 활성화 관련 주제 연구의 대상적 측면의 연구 주제로 자녀, 어머니, 유아, 아동, 가족 등이 다루어졌으며, 과정적 측면에서는 양육, 교육, 참여, 인식, 필요 등이 다루어졌다. 결과적 측면에서는 영향, 관계, 사회, 행동, 태도, 문제, 학교, 효과, 등이 연구 주제로 다루어졌다.

국외의 경우 아버지 양육 활성화의 대상적 측면의

www.kci.go.kr

연구 주제로 child, mother, family 등이 다루어졌으며, 과정적 측면에서는 group, involvement, intervention, support, need, role, skill 등이 다루어졌다. 결과적 측면에서는 relationship, effect, health, development 등이 연구 주제로 다루어졌다.

키워드 네트워크 형성 및 중심성 분석

키워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식은 키워드의 유사성을 측정하고 그 유사성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구조를 도출하는 것이다. 중심성 분석은 네트워크상의 키워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평가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 노드가 얼마만큼 많은 노드와 연결이 돼 있는지를 평가하는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과 한 노드가 네트워크상에서 중개자 역할을 얼마만큼 하는지를 측정하는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을 사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결 중심성 수치를 기준으로 20개 키워드를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분석 결과

순위	국내 문헌			국외 문헌		
	키워드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키워드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1	사회	0.97	0.018	child	0.84	0.24
2	아동	0.97	0.019	family	0.55	0.09
3	자녀	0.97	0.021	mother	0.45	0.03
4	어머니	0.94	0.018	infant	0.42	0.04
5	가족	0.91	0.016	intervention	0.42	0.09
6	양육	0.91	0.014	health	0.39	0.03
7	관계	0.86	0.013	role	0.37	0.04
8	유아	0.86	0.014	group	0.34	0.02
9	참여	0.83	0.012	involvement	0.34	0.02
10	가정	0.80	0.013	man	0.34	0.03
11	교육	0.80	0.010	need	0.34	0.02
12	정서	0.80	0.010	development	0.29	0.03
13	행동	0.80	0.008	relationship	0.29	0.01
14	영향	0.77	0.009	school	0.29	0.03
15	청소년	0.77	0.009	childrens	0.26	0.02
16	긍정	0.74	0.008	effect	0.26	0.02
17	인식	0.74	0.008	age	0.24	0.01
18	특성	0.74	0.008	behavior	0.24	0.02
19	경험	0.71	0.005	experience	0.24	0.01
20	집단	0.71	0.007	level	0.24	0.01

www.kci.go.kr

국내 문헌의 분석 결과 가장 높은 연결 중심성을 보인 키워드는 사회, 아동, 자녀, 어머니, 가족, 양육, 관계, 유아, 참여, 가정이다. 해당 키워드는 다른 키워드들과 가장 많이 연결되고 있으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핵심 키워드라 할 수 있다. 매개 중심성의 경우 자녀, 아동, 사회, 어머니, 가족, 양육, 유아, 가정의 순으로 높은 매개 중심성을 보여주었다. 국외 문헌의 경우 가장 높은 연결 중심성을 보여준 키워드는 Child, Family, Mother, Infant, Intervention, Health, Role, Group, Involvement이며, 매개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Child, Intervention, Family, Infant, Role, Health, Man, Development, School로 확인되었다. 국내 문헌의 연결 중심성에 대해 spring map과 circular map을 시각화하면 그림 3, 그림 4와 같고 국외 문헌의 연결 중심성에 대해 spring map과 circular map을 시각화하면 그림 5, 그림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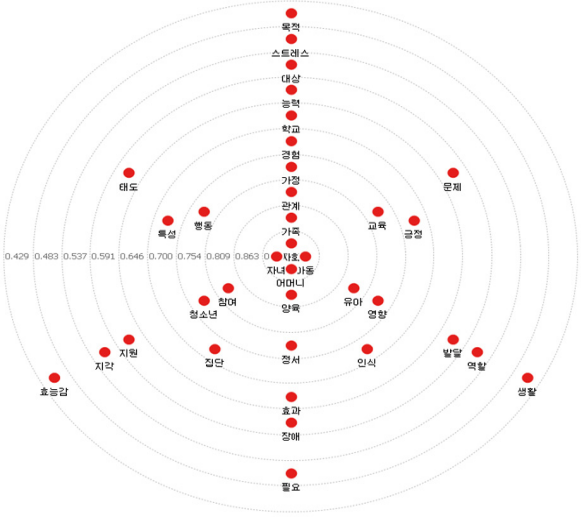

그림 4. 국내 문헌 연결 중심성 Circular map

시기별 아버지 양육 관련 키워드 분석

아버지 양육 참여 활성화 관련 연구 주제를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키워드의 출현빈도를 약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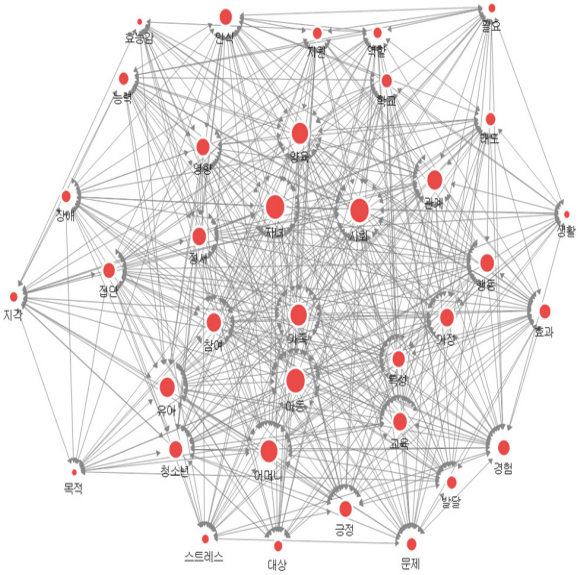

그림 3. 국내 문헌 연결 중심성 Spring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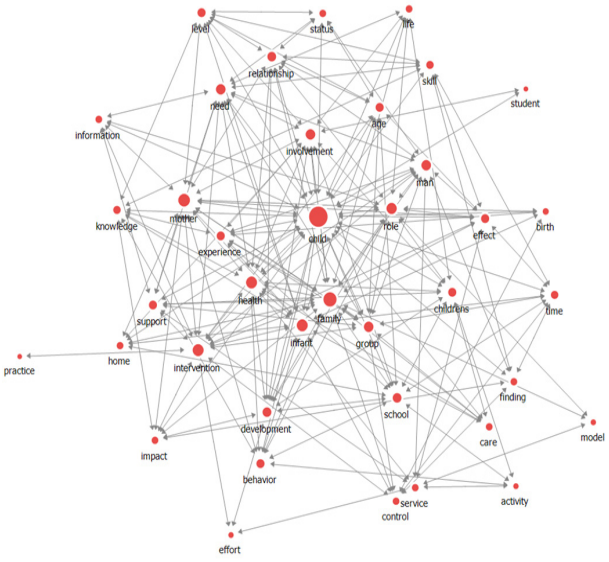

그림 5. 국외 문헌 연결 중심성 Spring map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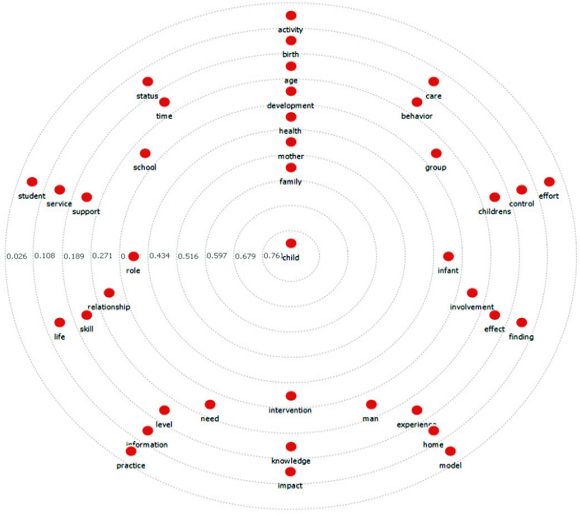

그림 6. 국외 문헌 연결 중심성 Circular map

단위 3개의 기간으로 나누어서 시기마다 핵심 키워드를 알아보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시기별 변화 추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국내 문헌은 1979~2000년까지를 1시기, 2001~2010년까지를 2시기, 2011~2021년까지를 3시기로 구분하여 연결 중심성 분석을 하였다. 국내 문헌 시기별 연결 중심성 수치를 기준으로 20개 키워드를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분석의 결과 1시기의 경우 부모가 0.16의 가장 높은 연결 중심성을 보여주었으며 다음으로는 교육이 연결 중심성 0.13, 아동이 연결 중심성 0.12로 나타났다. 2시기에 대한 분석에서는 부모의 연결 중심성이 0.63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0.50, 어머니는 0.47로 파악되었다. 3시기의 경우 부모의 연결 중심성은 0.89, 어머니는 연결 중심성 0.87, 자녀는 연결 중심성. 085로 나타났다. 또한, 3개의 연도 구분의 경우 '부모' 키워드가 가장 높은 연결 중심성을 보여주었으며 연도가 높아질수록 연결 중심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나타난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면 1순위로 나타나는 '부모'의 순위는 각 시기 동안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었다.

또 초기에는 자녀의 '문제'와 '생활', '흡연' 등 자녀의 행동 문제에 대한 훈육과 관련된 부분이 핵

표 5. 국내 문헌 시기별 키워드 분석(연결 중심성)

순위	국내 문헌 (1979-2000)		국내 문헌 (2001-2010)		국내 문헌 (2011-2021)	
	키워드	연결중심성	키워드	연결중심성	키워드	연결중심성
1	부모	0.16	부모	0.63	부모	0.89
2	교육	0.13	자녀	0.50	어머니	0.87
3	아동	0.12	어머니	0.47	자녀	0.85
4	문제	0.11	아동	0.39	아동	0.78
5	가족	0.11	교육	0.36	관계	0.76
6	자녀	0.11	사회	0.35	참여	0.76
7	참여	0.10	가족	0.33	가족	0.74
8	어머니	0.09	인식	0.33	양육	0.74
9	관계	0.08	문제	0.32	교육	0.72
10	반응	0.08	유아	0.31	유아	0.70

www.kci.go.kr

표 5. 국내 문헌 시기별 키워드 분석(연결 중심성) (계속)

순위	국내 문헌 (1979-2000)		국내 문헌 (2001-2010)		국내 문헌 (2011-2021)	
	키워드	연결중심성	키워드	연결중심성	키워드	연결중심성
11	수준	0.08	학교	0.31	행동	0.70
12	가정	0.07	관계	0.30	영향	0.67
13	시간	0.07	가정	0.29	정서	0.65
14	사회	0.06	태도	0.29	경험	0.63
15	유아	0.06	장애	0.28	인식	0.63
16	생활	0.06	수준	0.27	청소년	0.63
17	결과	0.06	집단	0.27	효과	0.63
18	필요	0.06	특성	0.27	가정	0.54
19	흡연	0.06	행동	0.27	발달	0.54
20	내용	0.05	영향	0.26	수준	0.54

심 키워드로 나타났으나 2시기에서는 '문제'만 나타났고 3시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1시기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자녀에 대한 '인식'(2, 3시기), '교육'(2, 3시기)과 '정서'(3시기), '양육'(3시기), '발달'(3시기) 등 양육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자녀의 문제 행동에 대한 훈육 등의 외적인 부분을 넘어 정서 및 인식, 발달 등의 내적인 부분에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국외 문헌은 1949~2000년까지를 1시기, 2001~2010년까지를 2시기, 2011~2021년까지를 3시기로 구분하여 연결 중심성 분석을 하였다.

국외 문헌 시기별 연결 중심성 수치를 기준으로 20개 키워드를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분석의 결과 1시기에서는 child가 가장 높은 연결 중심성인 0.27로 나타났으며 family는 0.19, group은 0.12로 확인되었다. 2시기의 경우 child가 가장 높은 연결 중심성은 0.27, group이 0.15, mother가 0.08로 나타났으며 3시기의 경우 child가 0.40으로 가장 높은 연결 중심성을 도출하였으며 다음으로는 mother가 0.32, family가 0.31로 파악되었다. 시기별로 나타난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면 1순위로 나타나는 'child'의 순위는 각 시기 동안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었으며, 최근 시기일수록 더 높은 연결 중심성을 보여주었다.

초기에는 'responsibility'와 'stress', 'impact' 부양자의 책임 및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분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다. 2시기에서는 자녀의 문제 행동 및 양육 방법에 대한 'information', 'treatment', 'process' 'intervention' 등 구체적인 개입에 대한 부분이 키워드로 나타났다. 3시기에서는 'relationship'과 'service', 'knowledge' 등 부양자를 넘어 양육자로서 자녀를 이해하고 양육을 제공하는 부분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www.kci.go.kr

표 6. 국내 문헌 연도별 키워드 분석(연결 중심성)

순위	국외 문헌(1949-2000)		국외 문헌(2001-2010)		국외 문헌(2011-2021)	
	키워드	연결 중심성	키워드	연결 중심성	키워드	연결 중심성
1	child	0.27	child	0.27	child	0.40
2	family	0.19	group	0.15	mother	0.32
3	group	0.12	mother	0.08	family	0.31
4	infant	0.11	need	0.08	intervention	0.29
5	mother	0.09	support	0.08	relationship	0.19
6	time	0.09	woman	0.08	group	0.17
7	age	0.07	birth	0.07	health	0.17
8	control	0.07	control	0.06	involvement	0.16
9	development	0.07	development	0.06	support	0.16
10	health	0.07	family	0.06	man	0.15
11	level	0.07	information	0.06	skill	0.15
12	need	0.07	intervention	0.06	childrens	0.13
13	role	0.07	man	0.06	level	0.13
14	support	0.07	treatment	0.06	need	0.13
15	behavior	0.05	attendance	0.05	service	0.13
16	impact	0.05	effect	0.05	age	0.12
17	involvement	0.05	infant	0.05	behavior	0.12
18	responsibility	0.05	interview	0.05	infant	0.12
19	stress	0.05	involvement	0.05	knowledge	0.12
20	woman	0.05	process	0.05	role	0.12

논 의

본 연구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국내외 아버지 양육 참여 관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아버지 양육과 관련된 연구들이 어떠한 주제와 개념으로 논의되었는지 확인 후 어떠한 의미 관계를 맺고 있는지 분석하여 향후 아버지 양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버지 양육 관련 국외 문헌 257편, 국내 문헌 652편 총 909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동향 분석을 시행하여 관련 연구의 빈도수를 파악하였고, 빈도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주제어를 선정하고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매개 중심성, 근접 중심성, 연결 중심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www.kci.go.kr

기초적 동향분석 결과를 종합해볼 때, 아버지 양육 관련 연구들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현시대 아버지 양육에 대한 중요도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저출생, 핵가족 형태로 자녀의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적은 수의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 주체적인 양육자로서 참여해야 한다는 것과 적은 수의 자녀에게 집중하여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기 위해 발달 시기에 올바른 양육 프로그램을 원하는 부모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정부에서 관계부처(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합동으로 '부모교육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그 결과 국내의 부모교육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발표 이후인 2017~2021년에 아버지 양육 관련 연구의 빈도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교육 연구 중 아버지 역할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국외 역시 마찬가지로 Man's Health Equity: A Handbook(2019)을 통해 일과 가정 양립의 중요성과 가정 내 아버지 역할의 지원, 자녀와의 상호작용 방법 교육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이 포함되면서 아버지 양육증진과 관련된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아버지 양육 관련 연구의 빈도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 아버지 양육 관련 키워드 분석을 보면, 초기 연구에는 아버지 양육과 관련하여 문제 행동의 중재 등 아버지 양육의 효과성 검증에 그 중점을 두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 양육을 촉진하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문제 행동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양육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한 정우영과 김희영(201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과 관련된 키워드의 상위 목록 중 어머니 관련 변인이 각 시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정미라, 김민정과 이방실(201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주요 주제어의 빈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 문헌의 경우 양육, 자녀, 교육, 영향, 관계 순으로 높았다. 아버지 양육이란, 자녀 양육에 있어 아버지가 직접 신체적, 물리적인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위개념으로 생활지도, 학습지도, 가사 활동, 여가활동 참여가 포함된다(이재구, 2018). 자녀의 생활을 지도(교육)하는 측면에서 더 나아가 가족들과 함께 여가 시간을 보내거나 가사 활동을 함께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아버지 양육 관련 연구의 키워드 중 출현의 빈도가 높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영향 및 관계의 키워드는 아버지 양육이 자녀와 배우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높을수록 부부관계가 좋아진다는 연구결과(박잎새, 남은영, 2015)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영아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강수경 et al, 2018)와 같은 결과로 볼 수 있다.

국외 문헌의 경우 child, mother, group, family, involvement 순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할 때, 가족들과 좋은 관계의 질을 형성하게 된다는 연구결과(Jessie et al, 2013)와 관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자녀와의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내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Adam et al, 2013), 아버지 자신에게도 긍

www.kci.go.kr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 참여가 증가할수록 양육효능감과 만족감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신체적 에너지의 고갈, 시간의 부족, 직장 내 업무로 갈등 등 실질적 어려움을 중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rry et al, 2008).

중심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 문헌은 사회, 아동, 자녀, 어머니, 가족, 양육, 관계, 유아, 참여, 가정 순으로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외 문헌은 Child, family, mother, infant, intervention, health, role, group, involvement, man 순으로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10개의 순위는 매개 중심성, 근접 중심성, 연결 중심성 모두 같은 순위로 나왔다. 중심성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것은 각 키워드의 정보 교류에 영향력이 큰 것을 의미하여(엄윤재, 이신동, 2019) 아버지 양육 관련 연구에서 자주 연구되는 상위 키워드일수록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로 볼 수 있다. 아버지 양육 관련 연구에서는 아버지 양육의 효과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감소와 결혼만족도의 증가(노성향, 2014; Brent et al, 2004), 아버지 자신의 자기효능감과 결혼만족도의 증가(노성향, 2018; 이미현, 2015), 자녀의 사회성 증진(박선희, 2017; 서석원, 이대균, 2014; Melinda et al, 2013)과 문제행동(Kaisa & Jari-Erik, 2005)과 학습 행동에 미치는 영향(한누리, 문혁준, 2014; Lola & Shrinidhi, 2008) 등과 같은 기존의 연구결과들이 핵심 키워드로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상위에 출현하는 핵심 키워드들은 당시의 연구결과나 사회문화적인 맥락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특별히 '사회' 키워드가 핵심 키워드로 등장한 것은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자녀의 사회성과 정적 관계(한혜림, 2021; 황보영 et al, 2020; Cory et al, 2002)에 있다는 기존에 잘 알려진 심리학적 연구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아버지 역할을 사회와의 관계성이라는 틀에서 바라본 사회학적 관점으로도 이해해 볼 수도 있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가족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적으로 확장하는 데 공헌한다. Kittay(1999)는 정치적, 경제적 필요와 가치에 더해 돌봄의 사회적 책임 원리를 제안(조윤경, 2008)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안전부(2017)의 '지역공동체의 이해와 활성화' 사업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사업의 목적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사는 사회에 관심을 가지며 개인과 가정을 넘어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양육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주체는 어머니들보다 더 많은 공적 자원을 획득하고 있는 집단인 아버지들의 몫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양육의 역할을 담지한 아버지들은 자신의 사적 영역에서 경험을 밑거름 삼아 양육 원리가 공적 원리에 도입되고 더 나아가 사회적 돌봄으로 확산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10년간 아버지 양육 참여 관련 연구는 대부분 영유아,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96%가 오프라인 형태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의 대상 확대와 교육 방법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접근될 수 있다(이사라 et al, 2009). 아버지 양육 관련 프로그램은 저출생, 고령화로 대표되는 사회 현상과 증가 되는 청소년 비행 문제, 청년 실업 등 더 확장된 대상과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확장된 생애주기별 아버지 양육 관련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소년, 청년 자녀 대상 아버지 양육 관련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상황과 정

www.kci.go.kr

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교육의 방법이 다각화된 시점(교육과학기술부, 2011)에서 부양자의 역할을 함께 짊어지기에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아버지들에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비대면 중심의 양육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기존의 오프라인 형태를 넘어선 블렌디드, 온라인 형태를 띤 다양한 교육들이 시도돼야 한다. 이는 현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이 양육 관련 프로그램의 다각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 최혜미(2014), 정보미와 김낙홍(201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국내외 아버지 양육 관련 연구들의 동향분석을 시행하였다. 도출된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에는 몇 가지의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논문 검색 시 학술논문 이외 아버지 양육 참여 관련 석 박사 논문들을 제외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모든 아버지 양육 관련 연구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물론 석박사 논문 중 일부는 학회지에 출간되어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었지만, 약 30% 정도의 논문은 출간되지 않아 추후 다양한 검색 자원을 활용하여 연구하면 아버지 양육 참여 활성화 관련 연구를 좀 더 폭넓게 조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제시된 키워드들의 출현빈도와 중심성 값을 분석하여 각 키워드가 맺고 있는 관계망을 심도 깊이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추후 k-core 분석 및 에고 네트워크 등 다양한 하위집단 분석 기법을 통해 각 키워드가 가진 관계망을 촘촘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의 인위적인 정제 작업이 아닌 저자들이 작성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에도 주관성이 개입되었을 여지가 있음을 밝힌다.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키워드의 정제를 다르게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연구의 결과 및 해석이 다른 방향으로 도출될 수 있기에 추후 연구에서는 키워드 정제에 대한 객관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가 간 신뢰도를 확보하여야 더 순수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의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국내외 아버지 양육 참여 관련 연구결과를 관계론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분석하였고 도출된 결과를 통해 아버지 양육 참여 연구의 지적구조와 특징을 조망했다. 둘째, 추후 연구 확대 방향과 잠재연구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버지 양육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준비 중인 연구자들이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강수경, 최혜정, 정미라 (2018). 부부관계 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단기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1**(1), 111-128. https://doi.org/10.35574/KJDP.2018.03.31.1.111

교육과학기술부 (2011).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권기남 (2014). 아버지의 e-learning 기반 부모교육 참여가 유아의 행복감 및 향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3**(2), 5-24.

권혜진 (2013). 아버지교육 참여자 경험을 통해 살펴본 아버지교육의 의미.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5), 461-488.

www.kci.go.kr

김미경, 김현주 (2016). 아버지-자녀 상호작용 놀이 프로그램이 아버지-자녀 상호작용 및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놀이치료연구, 20**(3), 73-91.

김민선 (2014). **이해를 위한 교수를 적용한 아버지 유아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나성은 (2014).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내재한 젠더 위계와 '신 도구적' 부성의 구성: 맞벌이 중간계층 아버지들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6**(1), 1-39. https://doi.org/10.21478/family.26.1.201403.001

나현정, 최미숙 (2017). 아버지 양육참여도 수준에 따른 유아의 성역할 개념 및 창의성 차이 분석. **열린부모교육연구, 9**(2), 1-22.

노성향 (2014). 아버지의 자기효능감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효과. **한국보육학회지, 14**(3), 45-59.

노성향 (2018).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자존감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아버지 양육참여와 부부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열린부모연구, 10**(2), 1-15.

리처드 플레처 (2012). **0~3세, 아빠 육아가 아이 미래를 결정한다.** 서울: 글담.

명현주 (2012). **'행복한 아버지 되기' 훈련 프로그램이 아버지의 행복과 부-자녀 관계에 미치는 효과.**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선희 (2017).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바람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1**(2), 151-160. https://doi.org/10.21184/jkeia.2017.02.11.2.151

박잎새, 남은영 (2015). 부부공동양육, 아버지 양육참여 및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4), 135-153.

박형신, 이진희 (2010). **나쁜 아빠-신화와 장벽.** 서울: 이학사.

변진언 (2017).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살펴본 정치교육 연구동향. **법교육연구, 12**(3), 73-93. https://doi.org/10.29175/klrea.12.3.201712.73

백진아 (2009). 기혼 남성의 부성과 가족 경험. **현상과 인식, 33**(4), 163-186.

서석원, 이대균 (2014).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열린교육연구, 19**(2), 157-178.

안혜선, 방경숙 (2014). 첫 아기 아버지에 대한 신생아 돌보기 교육이 산후 1개월 돌보기 지식과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44**(4), 428-436.

양소남 (2013). 아버지의 부성경험: 다양한 역할수행의 긴장과 갈등. **한국디지털정책연구, 11**(2), 375-383.

여성가족부 (2016).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엄윤재, 이신동 (2019).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경제적 소외계층 비교과 연계 프로그램 동향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7). 1073-1101. https://doi.org/10.22251/jlcci.2019.19.17.1073

윤성민 (2016).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 대상 웹기반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질적

www.kci.go.kr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1**(4), 653-684. https://doi.org/10.13049/kfwa.2016.21.4.3

이미현 (2015).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14**(4), 265-285.

이사라, 권정임, 이혜린 (2009). 자녀의 발달단계별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도 조사연구: 학령기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국보육학회지, 9**(4), 1-24

이수상 (2013).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서울: 논형.

이성용, 박소영 (2019).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특수교육연구 학술지의 연구 동향. **특수교육연구, 26**(1), 24-40. https://doi.org/10.34249/jse.2019.26.1.24

이재구 (2018).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결혼만족도를 이용한 매개효과 검증. **인문사회21, 9**(2), 955-968. https://doi.org/10.22143/HSS21.9.2.76

이종순 (2002). **청소년을 위한 예비아버지 교육프로그램이 가정폭력 예방에 미치는 효과.**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현아, 박 철, 김선미 (2017). 지역사회 건강지원센터 아버지대상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요구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31**(2), 319-348. https://doi.org/10.18398/kjlgas.2017.31.2.319

정미라, 김민정, 이방실 (2015). 어머니 문지기 역할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행동 간의 관계: 부부 간 의사소통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2), 355-373.

정보미, 김낙홍 (2016). 영아기 첫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부모교육 경험 및 요구. **아동교육, 25**(3), 377-393. https://doi.org/10.17643/KJCE.2016.25.3.20

정우영, 김희영 (2018).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양육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어린이미디어연구, 19**(3), 75-101. https://doi.org/10.21183/kjcm.2018.09.17.3.75

정혜영, 손유진 (2015).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유아교사 연구동향 분석. **생태유아교육연구, 14**(2), 283-308.

조윤경 (2008). 신자유주의화 이후의 아버지 역할 변화.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927-945.

조윤경 (2012).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동과 아버지 양육의 변화. **한국융합인문학, 2**(1), 83-112. https://doi.org/10.14729/converging.k.2014.2.1.83

조형숙, 김지혜, 김태인 (2008).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추구하는 아버지상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논집, 12**(1), 239-264.

최미숙, 송순옥 (2014).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5**(1), 313-332.

최혜미 (2014).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어머니들의 교육 요구분석. **한국보건기초의학회지, 7**(3), 95-102.

한누리, 문혁준 (2014). 유아의 문제행동, 아버지의 양육참여, 가정환경이 유아의 학습행동에 미치는 영향. **육아지원연구, 9**(3), 25-49. https://doi.org/10.16978/ecec.2014.9.3.002

한혜림 (2021).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양육참여도, 양육효능감의 군집유형 따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30**(5), 771-781.

www.kci.go.kr

황보영, 김순선, 박병려 (2020).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영, 유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비전연구, 1**(1), 103-130.

황혜신, 윤명자 (2015). 아버지-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아버지의 부모효능감, 아버지-자녀 상호작용, 자녀 양성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94,** 1-19.

행정안전부 (2017). **지역공동체의 이해와 활성화.** 서울: 행정안전부.

Adam, D. G., Erin, K. H., David, G. S., & Thomas, R. L. (2013). Father Involvement, Father‐Child Relationship Quality, and Satisfaction With Family Work: Actor and Partner Influences on Marital Quality. *Journal of Family Issues, 35*(13), 1846-1867. https://doi.org/10.1177/0192513X13479948

Bauman, D. C., & Wasserman, K. B. (2010). Empowering fathers of disadvantaged preschoolers to take a more active role in preparing their children for literacy success at school. *Early Childhood Educational Journal, 37*(5), 363-370.

Brent, A. M., Sarah, J. S., & Thomas, R. R. (2004). Child Characteristics, Parenting Stress, and Parental Involvement: Fathers Versus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4), 998-1011. https://doi.org/10.1111/j.1741-3737.2002.00998.x

Brown, F. G. (1969). Seven years of the journal: A review.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8*(4), 263-272. https://doi.org/10.1002/j.2164-4918.1969.tb03316.x

Cory, D. S., Sylvia, L. V., & Douglas, L., S. (2002). Comparison of mother and father report on the personality inventory for children in a non referred Canadian sample. *Canadi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17*(1), 85-95. https://doi.org/10.1177/082957350201700107

Fagan, J., & Kaufman, R. (2015). Reflections on theory and outcome measures for fatherhood program. *The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Services, 96*(2), 133-140. https://doi.org/10.1606/1044-3894.2015.96.19

Harry, F., Lisa, A, N., & Diana, D, C. (2008). Father beliefs as a mediator between contextual barriers and father involvement.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78*(7-8) 803-819. https://doi.org/10.1080/03004430802352228

Jessie, J. W., Danielle, S. R., Nancy, A. G, Larry, E. M., & Roger, E. M., (2013). Father Enrollment and Participation in a Parenting Intervention: Personal and Contextual Predictors, *Family process, 52*(3), 440-454. https://doi.org/10.1111/famp.12024

Kaisa, A., & Jari-Erik, N. (2005). The Role of

www.kci.go.kr

Parenting Styles in Children's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6*(6), 1144-1159. https://doi.org/10.1111/j.1467-8624.2005.00841.x

Knox, V., Cowan, P., Cowan, C., & Bildner, E. (2011). Policies that strengthen fatherhood and family relationships: What do we know and what do we need to know?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35*(1), 216-239. https://doi.org/10.1177/0002716210394769

Lola, B., & Shrinidhi, L. (2008). Parenting Styles: The Impact on Student Achievement. *Marriage & Family Reeview, 43*(1-2), 14-38. https://doi.org/10.1080/01494920802010140

Cabrera, N. J., & Tamis-LeMonda. (2013). Handbook of father involvement: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Melinda, S. L., Thomas, J. S., & Ross, D. P. Fathers' contributions to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pp. 151-167). New York, NY: Routledge.

Nicola De Bellis (2010). Bibliometrics and citation analysis: From the Science Citation Index to Cybermetrics. Maryland: Scarecrow Press, Inc.

Ringsmose, C. (2012). Social Welfare and minding the achievement gap: A view from Denmark. *Childhood Education, 88*(3), 185-188. https://doi.org/10.1080/00094056.2012.682552

Saracho, O. N. (2007). Fathers and young children's literacy experiences in a family environment.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77*(4), 403-415. https://doi.org/10.1080/03004430600563034

www.kci.go.kr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22, Vol. 35, No. 3, 61-81

Theoretical Review for Promoting Fathers' Involvement in Parenting*

Yong-hun Kim[1] Kyung-Sook Lee[2]

College of Human Service, Hanshi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1]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Hanshin University/ Professor[2]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baseline data and future directions for promoting fathers' parenting. This study conducted keyword network analysis using 652 and 257 papers published in Korea and overseas, respectively, and sampled using keyword combinations. The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was confirmed by maximum connection distances between keywords and mean distances between nodes. Studies on fathers' parenting increased steadily. Fathers' role shifted from the supporter to the rearer. Early studies evaluated the effectiveness of parenting, while later studies explored ways to promote parenting. Betweenness centrality network analysis revealed that key studies were on self-efficacy, improved relationship with a wife, child's sociality, relationship, and enhanced cognitive functions. These results can be used as the baseline data for fathers' parenting, not a sufficiently studied topic, because it presents the directions for promoting fathers' involvement in parenting.

Keywords : Father, fathers' parenting, research trend, and keyword network analysi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Hanshin University Research Grant

www.kci.go.kr